

[변경 대비표]

1. 펀드명 : 우리템플턴퇴직연금글로벌 40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

2. 효력발생일 : 2025.06.27

3. 정정사유

- 운용전문인력 변경
- 외국납부세액 제도 변경사항 반영
-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
<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[요약정보]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-	[요약정보]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 변경	[요약정보] 운용전문인력 책임 : 서우석 부책임 : XU LINJING(허림경)	[요약정보] 운용전문인력 책임 : 윤여준 부책임 : 정지윤
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, 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-	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, 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 변경	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서우석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XU LINJING(허림경) <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> (1) 우리 템플턴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책임운용전문인력 : 서우석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XU LINJING(허림경)	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윤여준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정지윤 <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> (1) 우리 템플턴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책임운용전문인력 : 윤여준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정지윤
외국납부세액 제도 변경사항 반영	제2부. 14. 나. 과세 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	제2부. 14. 나. 과세 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

	<p>이자·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환급세액 = 외국납부세액 × 환급비율*</p> <p>* 환급비율 : (과세대상소득금액 /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)</p> <p>단, 환급비율 >1 이면 1, 환급비율 <0 이면 0 으로 함</p> </div> <p>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- 원천징수 원칙 <추가></p>	<p>이자·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 다만,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별도의 환급절차가 없습니다.</p> <p>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- 원천징수 원칙 또한,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원천징수 의무자(판매회사 등)는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(이자·배당소득)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하며,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/p>
--	---	--

<간이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-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 변경	운용전문인력 책임 : 서우석 부책임 : XU LINJING(허림경)	운용전문인력 책임 : 윤여준 부책임 : 정지윤